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담당자: 홍서윤 수석대변인(010-4455-8255)/유민아 대변인(010-6559-3099)

모두를 위한 주거정책을 펼치겠습니다

‘22.02.24(목) 16:00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진성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세입자의 안전한 주거문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8월에 발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인 자가 보유율은 60.6%이며, 무주택 가구율은 39.4%입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세입자로 주택 마련의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107만호를 포함하여 전국 311만호 주택 신속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신규 공급물량의 30%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여 주거문제에서 특히 취약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여 주거 불균형을 바로 잡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40%의 무주택 가구를 위해 주택 보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 정보 유포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13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한 해 약 160만 건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2020년 11월 부동산거래분석원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직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수사권이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시장화를 위해 힘을 함께 모으겠습니다.

주택 공급 강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로 세입자안전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소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세입자안전위원회 위원장]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갱신율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포인트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서 11월 사이 전국 아파트 임차인 중 77.7%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률이 제한되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해 급격한 전월세 인상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차인들의 평균 거주기간도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가 이전보다 더 안정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인 한 시민은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 아찔합니다. 올해 1월이 집 계약 만료였는데, 새로운 집을 찾는 것도 어려웠고 전세값을 얼마나 올려줘야 할지 몰라 재계약도 겁이 났어요. 그런데 임대차 3법 덕분에 임대료 5% 인상 조건으로 재계약 했습니다. 없었으면 어땠을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

실제 세입자들의 삶은 더 나아졌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집이 그렇지 않은 세입자보다 11%에서 19% 가량 더 적은 임대료가 상승하였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현격히 줄이고 거주기간도 확보하여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여름 첫 번째 부동산 공약으로 당선되면 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4년이 아닌 2년으로 회귀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 고도 하셨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지난 17일 송파와 서초의 유세현장에서도 서초와 송파 등 강남지역 유세에서 “20억 아파트 사는 서민들, 세금내기 바쁘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종부세가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전면개편을 약속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일관되게 ‘강남3구에 집 가진 서민’ 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커녕 보증금 1억이 없어 전세대출 받아 2년마다 이사해야 했던 세입자들은 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세입자들을 우롱하는 발언입니다. 그나마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택임대차보호법마저 과거로 회귀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계획하게 된 세입자들의 희망을 뺏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세입자로 살아본 적 없고, 신혼을 25억이 넘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시작한 윤 후보님의 처지에서는 단 한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세입자들의 처지는 다릅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2. 세입자들의 처지는 느리지만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의 변화를 두고, 바로 그 세입

자 ‘서민’ 들을 위하여 반대하는 것이라는 어설픈 걱정은 멈추십시오. 진짜 세입자 ‘서민’ 을 위한 변화는 윤 후보가 이야기하는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을 위한 ‘진짜 변화’ 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만 19~34세 청년의 약 80%가 임차로 살아가고 임차 청년의 약 60%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이 정책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조그마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공약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폭 인상하고 5년 전 월세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2월 공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값만 급등한 게 아니라 월세 임대료도 올랐고, 세입자의 부담이 커졌고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기존의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부터 집을 빌려사는 사람까지 삶이 나아질 수 있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윤 후보의 철학과는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서민’ 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주거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 : 기자회견 사진 4장

[기자회견 사진]



